

사회법 소송 문제 삼던 Y교회 어려움 처하자 곧바로 고소고발

고소고발자 - 자격상실, 자가당착 Y총회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비난하던 당사자들이
최근 강남의 K교회 사태와 관련 고소했다.
또 H 장로회장 등 Y교회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8일 최 목사 등 K교회 교역자 2명과
비평과 논란 발행인 김경직 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5월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의로 방송, 일간지 및 교계신문사를 수신료로 하여 제공한 보도자료 -기하성(여의도순복음) 한법 개정 위한 임시총회 개최 -를 보면 가림자격에서 "일정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고소, 고발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분열된 기하성 교단이 서로 반목하고 사회법 소송 등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지난 5월 19일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하였다.

①정치활동을 하거나 ②고소, 고발 사건에 참여하는 지는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가입 조건을 적어야 한다. 통합된 교단에서 이탈하여 단독총회를 창립한 것이 정치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총회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면서 교단을 창립한 것은 가장 비열한 정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모두 회원 자격이 없으니 저승차박결인 셈이다. 자기당착 행위를 교단창립의 이유로 표방하니 보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교계의 여론이다.

이렇게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비난하던 당사자들이 최근 강남의 K교회 사태와 관련 2011년 1월 5일자 국민일보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 목사 등이 송구영신예배가 진행 중인 때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들을 뿌린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고 하고 "허동진 장로회장 등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8일 최 목사 등 강남교회 교역자 2명과 비평과 논란 발행인 김경직 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의도순복음 총회는 2009년 임시총회 당시 "각종 재판이 진행됨으로 우리의 선교역량이 심각하게 상쳐 받고 있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 임시총회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86조 피선거권의 제한"에서 "총회에서 유출하다 인정하는 자, 사전 선거운동자들, 교단의 위상을 하락시킨 자들, 일반 법정에 교회와 교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들"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송사하는 것을 즐긴 사람은 없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 합당한 사람들이 최후로 기밀 언덕이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없으면 좋아할 사람은 사기꾼, 협잡꾼, 강도, 도둑놈뿐이다.

각종 불의한 일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해오는 가해자를 상대로 어찌 기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던 말인가. "각종 재판이 진행됨으로 선교역량이 심각하게 상쳐를 받아 교단정리를 하게 되었다"며 공적인 변명으로 배경을 설명하던 당사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바로 법정에 고소고발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예외란 말인가?

그동안 교단 통합 이후 이탈측과 크고 작은 많은 민형사 소송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를 종류별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단법인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동산처분금지처분과 이사회결의무효, 주처장결의무효, 출입금지처분 등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고, 상표권처분금지처분, 상표권사용금지처분, 업무표상사용금지처분 등과 회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들은 교단명칭과 관련된 소송이다.

총회와 목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었다. 단순한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조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안들이다.

의와 진실을 외면한 채 목회성공의 판단기준을 물결과 숫자와 외형에만 두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막대한 재정능력으로

화려한 행사와 자선구제를 행하는 것으로 불의와 기만을 포장하고 세를 과시하며 기고만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 받지 못한다. 식언을 예사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도자가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하면 그 조직과 체제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도자를 추종하려고 하면 기회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마음이 편하다. 식언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건강부회하는 폐습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예측 가능한 지도자와 회원으로 형성된 교단총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다. 우리 총회원 모두가 개혁정신을 가지고 교단총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통합된 본 총회는 부당한 손실과 피해를 막고 탈취당한 권리를 회복하려면 법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난관만 거칠고 술수와 농간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합거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케 되었다. 이 지경에서 본 총회를 속이고 불법한 방법으로 분리를 나가서 이탈측을 돕는 자들에 대하여는 할 말을 잃었다. 목전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술수를 지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선과 악, 불의와 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폐기처분하고 행동하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성도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회원 수를 늘이고 세력을 키우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는가? 큰 세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의와 진실을 짓밟고 은혜총만이니 성령운동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비극이다.

하나님의성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간 중심의 모임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불행과 불의가 판치며 소수의 행위자들이 복마전을 만들어 소위 대선배나 원로들이라는 인사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그들의 배후 옹호자와 방아쇠 노릇을 하는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건설한 총회원들이 요청하지 않고 총회를 지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신령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설혹 물질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유익을 크게 얻는다면 사실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은퇴목회자 장로, 홀사모 등 미자립 농어촌교회에 사랑나눔 7년째

제주지방회, 제주순복음교회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지방회(회장 박명일 목사) 제주순복음교회(담임 표순호 목사)에서는 구랍 18일(토) 제주시내 은퇴목회자, 홀사모, 은퇴장로 20여 명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증정하였다.

제주순복음교회는 복음지역을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한 제주시내 목회자, 홀로된 사모, 은퇴한 장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7년째 이들에게 사랑나눔의 시간을 갖고 작은 정성을 나누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순복음교회는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구랍 22-23일에 제주도에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교회 50여 교회를 선정하여 사랑의 쌀과 선물을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 지역 역시 7년째 계속해 오고 있으며 20kg 두 포대씩



나누어 주며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나눔을 이어 오고 있다.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알고 바로쓰자

우리 사모(師母) (X) 우리 사모(師母)님 (X)
제 아내 (O) 저의 안사람 (O)

사모(師母)라는 말은 ① 남자 선생님의 부인(아내) ② 남의 부인(아내) ③ 목사의 부인(아내)를 높여서 부르거나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당사자들은 회중 앞에서 혹은 대화 중에 자기 부인(아내)를 칭하여 우리 사모(師母) 심지어 우리 사모님(師母님)이라고 존칭까지 붙이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

사모(師母)라는 말은 ① 남자 선생님의 부인(아내) ② 남의 부인(아내) ③ 목사의 부인(아내)를 높여서 부르거나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아내", 또는 저의 "안사람" 또는 요새 흔히 사용하는 "wife"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호칭할 때 누구나 사모(師母)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단 자문위원장 이종은 장로



2011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1학년도 졸업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졸업예배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졸업식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목회대학원

2011학년도 졸업식

- 일 시: 2011년 1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 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1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 참석대상: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생
- 참 고: 1) 졸업생은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연습)
2) 졸업받은 수령은 졸업식 당일 인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 바랍니다.
※ 버스 노선: 수원역에서 10, 10-1, 10-2, 10-5, 37 (동수원병원 앞 하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THE ASSEMBLIES OF GOD, KOREA
총회목회대학원